

김경욱 제2차관, 한-베트남 인프라 협력의제 점검
- 21일,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제도협력, 협력사업 추진 등 논의 -

□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1일(수) 레 딘 또(Le Dinh Tho) 베트남 교통부 차관을 만나 PPP 제도정비, 비행훈련원 설립 등 양국간 인프라 협력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베트남은 '21년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종합계획(10년 단위)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중으로,
- 또 차관은 이번 방한이 고속도로·교량 등 인프라 건설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.

□ 양 측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추진된 양국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.

- 우선,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**PPP법 개정*** 관련 양국 간 협력회의, KSP 등을 통해 제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높이 평가 하며, 합리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.

* '20년 개정목표, '19.5 개정안에 MRG 명시 (보장기간, 비율 등 구체화 중)

- 또한, '17년부터 논의 중인 한-베 합작 비행훈련원*이 조속히 추진 되어 양국 교통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.

* 베트남에 공용 비행훈련원 설립(약 98억원, 한.공항공사-베.국립항공교육원)

□ 김경욱 제2차관은 “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차량보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.”면서,

- “합작 비행훈련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차관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, 북남 고속도로·고속철도, 룡탄 신공항 등 베트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언급했다.

2019. 8. 21.
국토교통부 대변인